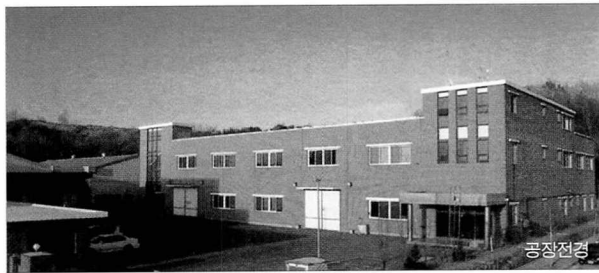


신제품 개발 · 최신설비 도입으로 수출 길 연다

불경기로 인해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빠르게 일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상업인쇄, 출판인쇄, 포장인쇄, 라벨인쇄 및 가공 등을 하고 있는 (주)유진프린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파주로 이전하면서 60여명의 직원들이 합심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 공급'이라는 방침 아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제일주의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당하기도 했다. 지난 198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8색 로터리식 라벨인쇄기를 도입해 컬러화·자동화를 이루면서 회사 내 부적으로는 품질향상, 고속생산 등을 실현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일제당 등 고객사들은 자

동 라벨부착기 등을 도입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던 일들을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실현해 고속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유진의 활동으로 인해 로터리식 다색 라벨인쇄기가 국내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다양한 라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사들의 생산라인 자동화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 유진은 디지털 디자인과 온라인 교정을 통한 공정 혁신으로 고객이 맡긴 디지털 원고를 빠짐없이 확실히 처리해서 CEPS(상업 인쇄용 컬러 화상 시스템)를 제판 작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확립, 고객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라벨로 시작해 토털프린팅시스템 구축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위치한 (주)유진프린팅(대표 김진배)에 들어서면서 반갑고도 정겨운 소리가 들렸다. 다들 불황이라고 울상인데 이곳에서는 오프셋인쇄기, 라벨인쇄기, 기타 가공기 등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토털프린팅시스템을 지향하는 유진프린팅은 지난 1974년 씨링기 한 대로 3형제가 창업, 이제는 오프셋인쇄기 3대, 라벨인쇄기 3대, 자동 톱슨기 등 각종 가공기들이 공장 1층을 가득 메우고 있다.

창업 당시 현 김진배 사장은 영업, 형님은 자금조달과 관리, 동생은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씨링기 한 대로 시작해 이제는 상업인쇄, 출판인쇄, 포장인쇄 그리고 라벨인쇄분야까지 기획, 편집, 제판, 인쇄, 코팅, 제본 등 전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토털프린팅시스템을 구축한 인쇄사로 발돋움했다.

특히 유진프린팅은 국내 라벨 자동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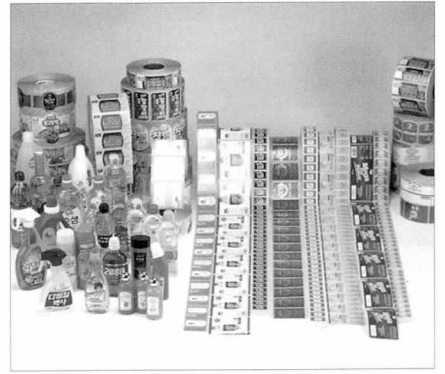
품질관리 등 철저한 관리체계 이뤘

유진프린팅은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방안들 중의 하나가 TPM활동으로 설비효율의 극대화와 품질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TPM활동을 위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다각도로 도출해 내서 사람과 설비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낭비 없는 설비 만들기를 위해 설비 로스항목을 만들어 로스 추방운동을 전개, 손실률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유진프린팅에서
제작하는
각종 인쇄제품들.



그리고 삼성, 엘지, 제일제당, SKC 등 국내의 우수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유진은 품질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난 1997년 DNV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영업, 생산, 총무 등 부문별 전문화를 통해 최적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 전담 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에 두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 ISO 14001 인증 획득과 신규 설비도입도 추진 중이다.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ISO 14001 인증 획득은 물론 플렉소인쇄기를 도입, 환경경영과 품질경영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시기와 물량, 신제품 개발과 맞물려 새로 도입될 설비들은 유진이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과 환경, 그리고 고객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국내 우수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도 다소 영향은 있으나 인쇄기가 멈추지 돌아가는 것은 남다른 관리체계를 이룩한 것이 아닐까.

한편 유진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수출에 의한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라벨 수출을 본격화한다는데 전 사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품질향상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신설비 도입 등을 추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며 이로 인해 신규 설비도입을 신중히 해 앞당길 계획이다.

신제품 개발과 제안제도로 불황 타파

유진프린팅이 불경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동력은 신제품 개발과 고객 제안제도에 있다.

지난 1995년 2종의 실용신안 등록을 상용 제품에 활용하여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유진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함으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도 택배용 라벨을 비롯해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의장등록을 획득하고 고객들에게 제안,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기술 개발이나 신제품개발이 어려운 인쇄분야에서 이와 같은 활동은 인쇄산업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신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 개척은 물론 기존 제품의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번에 상품화되는 것 중 하나는 라벨에 라미네이팅을 할 때 엠보싱을 넣는 것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각종 무늬를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제품이다. 평범함을 벗어나 독특하게 표현되는 각종 라벨이 선을 보임으로써 라벨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의 고객 제안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것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사에 제안함으로써 유진은 신규 수요 창출을 하게 되고 고객사는 신제품을 이용,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 제안제도는 회사 내부에서의 제안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원들은 애사심이 생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파주로의 사옥 이전 누구나 만족

지난 2000년 10월 파주시대를 맞은 유진프린팅은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파주로의 이전을 추진해 온 유진은 당초의 우려와는 반대로 지금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진은 파주로 사옥 이전을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직원들을 인근 고양시나 파주시로 이사할 것을 장려하고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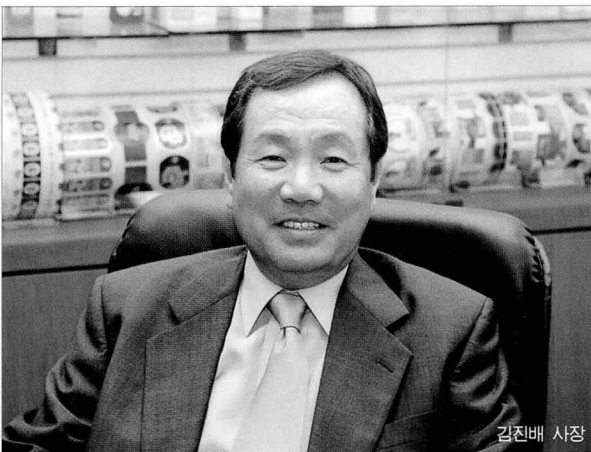
그리고 이전 후에는 1년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등 직원들의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기도 했다. 1년 이 지난 2001년부터는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자가용 차량 유지비를 일부 보조하는 한편 유류대를 지급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이사해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회사측의 배려 탓인지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유진의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직률이 낮아 기술 전수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에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줘 회사 측으로서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신축 사옥으로의 이전은 자연환경은 물론 작업환경도 크게 개선돼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능률도 올라갔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라 이전 당시 넉넉한 공간 확보와 환기시설, 기숙사, 위생시설 등을 갖춰 근무환경도 개선돼 작업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유진은 앞으로 인근 지역에 출판단지 외인쇄단지가 정착되면 업체간의 상호 정보교류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벨협회 문호개방과 홍보 전력



김진배 사장

형제들과 함께 창업의 뜻을 모아 인쇄업계에 입문한 김진배 사장은 영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연구개발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한다면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김 사장은 자체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품질은 기본이고 여기에 각자의 아이템이 추가되어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이미 엠보싱 라벨 등 몇 종류는 의장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다. 연구개발은 직원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혼자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은 샘플을 위한 작업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라벨정보산업협회의 회장직도 지난 6월부터 맡고 있다.

“라벨협회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공언한 것이 회원배가운동이다. 기존의 친목회에서 벗어나 규모면에서도 협회다운 면모

를 갖추고 단순 친목보다는 세미나 개최, 협회 위상제고, 공동 기술개발 등과 함께 서울인쇄조합에 라벨부회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라벨업계가 너무 폐쇄적으로 지내온 것에 대해 인쇄업계 전체에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라벨에 대한 홍보를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협회 만들기 그리고 라벨시장 키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 사장은 인쇄 홍보에도 열성적이다. 처음에 인사나 하고 지내자는 취지에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는데 기회가 되어서 회원들을 초대한 적이 있는데 현대화된 인쇄시설을 보고 인쇄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건강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과 헬스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쁘게 일하는 것이다. 그 대신 즐겁게 열심히 해야 하되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도 있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비 투자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 등에 샘플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 라벨협회장직을 맡은 만큼 열성적으로 협회 일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연구와 경영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까지 정열적으로 하고 있는 김 사장은 “10년만 더 젊었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도 주위에서 만류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김 사장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어떻게 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 <윤재호 부장>